

사육분과위원회 개최



본회 사육분과 부회장(이영희)은 지난 1월 25일 사육분과위원회를 열어 사육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육용오리의 적정 출하 가격을 협의했다. 이날 중부지역 사육농가들은 지난 22일부로 새끼오리 가격을 7백원으로 육용오리 가격을 4천5백원으로 결정한 호남지역의 시세조

용오리 시세 또한 현행 4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는 육용오리 가격을 4천3백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육용오리 출하 가격을 4천3백원으로 결정했다. 또 이날 사육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정례화하여 사육업계간 정보를 신속히 교환하고 고충을 함께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결의했다.

정이 있었던 만큼 중부지역의 육

부화분과위원회 개최

본회는 지난 1월 30일 전국부화장을 대상으로 한 부화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전 유성 이글빌리지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이병선 부화분과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오리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부화장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전제하고 오늘 분과위원회는 부화업계 종사자 회원간 유대관계는 물론이고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사육확대 및 사육량 조절 생산성 향상 등을 숙

의하고 대처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부화업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전국 부화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부화장들은 부화업계의 현안문제들을 숙의하고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지역별로 위원을 선임했다. 광주전남지역 위원으로 이덕행, 양성현, 이병선, 박관병, 김기호, 이신 등 6명과 중부지역에서는 이재석, 양태식, 조정

제 2차 이사회 개최

씨 등 3명 등 총 9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부화분과 위원들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부화업계의 현안문제를 숙의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해당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하는 이외 부화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펼치게 된다.

본회는 지난 20일 수원축협 웨딩프라자 3층 홍실에서 제 2차 이사회를 열어 전년도 수지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 전에 개최된 이사회는 상하반기에 걸쳐 감사를 통해 전년도 수지결산이 심의됐다고 전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소비홍보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조사연구사업이

중점 펼쳐지게 된다. 본회는 지난 20일 수원축협 웨딩프라자에서 제 11차 정기총회

한편 이날 전국 부화장들은 부화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새끼오리 가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가격인상에 동의하여 2월 1일부로 새끼가격을 종전가격보다 1백원 인상한 8백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가격조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육업계 이사진의 사육, 부화, 유통이 합쳐서 가격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견과 업종별로 나눠 시행키로 한 광주전남도 지회 이사진의 의견이 엇갈려 차기 이사회로 넘겨 논의하기로 했다.

를 열어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수지결산안 정관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규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 국내 오리업계는 여러 가지 악재에 의해 하반기 전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봄이 온 현재도 대다수가 봄을

제 11차 정기총회 개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춘내불사춘형국이라며 이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협회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자조금 사업 활성화에 의한 오리고기의 소비확대 및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 올 협회가 추진할 역점사업임을 강조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결속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올해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소비홍보 및 소비촉진 사업으로 모범요식업소 지정에 의한 국내산 오리고기 소비확대, 오리고기 소비홍보 포스터 및 국산오리 품질인증, 오리고기 비수요기 홍보매체를 통한 소비촉진 사업이 펼쳐지게 된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비 절감사업으로는 오리고기 주요 생산비 조사에 의한 개선방안 마련, 우수사육농가 및 모범 계열화 사

육업체 발굴에 의한 사육기술 보급이 펼쳐지고 ▲ 정책개발사업으로 전염성 간염에 대한 방역사업 지원요청, 위생도축장 지원사업 차질 없는 마무리 및 오리도축장에 대한 HACCP 제도 시행방안 마련, 종오리 개량을 위한 축산법 제도개선, 수입종오리에 대한 실수요자 증명 생산자 단체가 확인토록 관련제도의 개선, 자조금입법 시행시 오리업 포함, 오리업 증장기 종합발전대책 수립 건의 등이다. 이밖에 협회조직강화 사업으로 각 지회별, 계열화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계열농가에 대한 협회가입을 유도한 회원확충 사업과 지도교육사업으로 정보지발간 및 오리사육관련 세미나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개최된다.

이를 위한 수지예산은 전년대비 286% 증액된 1억4천3백72만원으로 짜여졌으며 이 중 소비홍보 및 지도교육사업 등 사업비에 6천7백만원이 쓰여져 전년대비 610% 사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운영비 2천60만원, 일반관리비 4천7백

광주전남도지회
총회개회

만원 등 1억3천5백48만원의 지출 예산으로 짜여졌다.

또 이날 현행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정관 14조의 규정이 협회 업무 수행에 비효율적이라는 지

적에 따라 3년으로 상향조정된 정관개정안이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되었으며 지난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임원선거 및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규정이 고지됐다.

광주전남도지회(지회장 이덕행)는 지난 23일 한해를 결산하는 정기 지회총회를 열어 사의를 표명한 이덕행 지회장 후임에 양성현 덕신부회장 대표를 새로운 지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 지회직을 맡아온 이덕행 부성농장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회 활성화와 지역 오리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전제하고 후임지회장으로 선출된 양성현 지회장은 20년 넘게 오리업에 종사해온 경력이 말해주듯 누구보다 이 지역의 오리현황을 잘알고 계시는데다 연륜도 있어 지회 활성화

및 지회원의 권익 대변에 가장 책임자라며 지회원들의 더 많은 협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임 양성현 지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본 광주전남지회는 국내 오리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오리산업의 중요한 위치해 있다며 전임 지회장이 잘 이끌어온 바탕 위에 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성현 신임 지회장은 또 지회활성화는 지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룩될 수 없다며 지회원들과 특히 계열업체들의 더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사육분과위원장 새끼오리 가격인하 민원 제기

본회 사육분과 이영희 부회장은 지난 2월 22일 현재 육용오리 시세에 비해 새끼오리 분양가격이 높아 사육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며 부화분과 위원 및 주요부화장에 새끼오리 가격을 인하해 줄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민원을 제기했다.

사육분과부회장은 민원서에서 새끼오리 가격은 지난 1월 21일 7백원으로 인상된 이후 2월 1일부로 8백원으로 추가인상되어 시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육용오리 가격은 지난 21일 새끼오리 가격 인상 당시 육용오리 시세를 4천5백원

을 기준시세로 한 가격이 2월 20일 현재 중부지역의 경우 평균 4천2백원을 유지하고 있어 새끼오리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육업계는 설 연후를 전후로 소비위축에 따라 오리출하가 지연되고 있어 사육업계의 농장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끼오리 가격을 1백원 인하한 7백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사육, 부화업계가 공동 발전하는 길이라며 부화분과 및 전국 부화장들은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검토하시어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부화분과위원회 전국 부화장 회의개최

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 병선)는 지난 27일 전남 광주에서 전국 부화장 회의를 개최하여 새끼오리 가격에 대해 논의했다. 사육분과 부화장이 배석한 가운데 열리 이날 부화분과위원회는 현재 새끼오리 가격인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이유로 새끼오리 가격인하는 설을 전후로 한 육용오리 출하가 지연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향후 3월중 육용오리 가격 및 출하가 다소 호전될 전망에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새끼오리 가격인하가 단행되면 3월 육용오리 가격

사육,부화,유통업체
회의

이 인상되는 경우는 9백원선 인상이 불가피하여 인하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대해 사육분과 부회장은 가격인하가 안되는 경우 3월중 중부지역의 산지오리 가격이 4천5백원선을 회복할 때까지 새끼오리 가격 인상 없이 유지할 것을 차선책으로 제안했다.

사육, 부화, 유통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전남 나주에서 회의를 열어 오는 4일부터 새끼가격을 1백원 인하하여 7백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육, 유통분과 위원들은 지난 설을 전후로 소비가 위축되어 육용오리 출하 일령이 지연되고 있고 일부 계열 유통업체들은 생산량의 일부를 냉동비축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며 새끼오리 역시 생산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날 회의는 새끼오리 가격은 중부지역의 육용오리 시세가 4천5백원선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 3월에 종전가격을 유지하되 육용오리 시세가 4천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새끼가격 인하를 검토키로 하고 부화분과위원장 및 사육분과위원장 합의사항으로 공문을 송달키로 했다.

있어 수요공급 및 육용오리 시세를 감안할 때 새끼오리 가격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부회장들은 사육 유통업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여 육용오리 출하가 다소 나아지고 가격이 오르면 새끼오리 가격 인상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육유통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끼오리 가격을 4일부터 7백원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